

6 오피니언

사설

유학생 동문과의 소통체계 확립할 때

우리학교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토대로 국내 대학 유학생 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동문만 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졸업한 유학생들과의 적절한 소통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학교 소식을 간간히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향후 학교가 누릴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 동문들에게 메일함에 쌓이는 전자 우편의 개수는 모교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나 다름없다. 김영주(한국어학) 교수는 모교인 로체스터대학에서 보내온 기부 독려 우편에 무려 10년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편물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심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동문 기부뿐 아니라 신규 유학생 유치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유학생 유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유학생이 한국에 유입된 기간이 꽤 흘렀다는 점에서 이제 그들은 인지도만을 진학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실제 졸업생들이 만들어 내는 입소문이 중요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학은 평판 관리에 있어서도 큰 이점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해도 재학 기간 짧은 ‘애교심’이 없다면 학교의 소식은 그저 지나칠 메일 한 통에 불과하다. 유학생들이 하다못해 학교에 서운함을 품은 채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학의 상황은 모두의 이상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간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장 온라인 게시판만 들어가

봐도 유학생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갈등 사례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거 없는 얘기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표현까지 혐오가 만연한 상황이다. 설사 혐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유학생의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국 학생과 유학생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학생이 이미 그들만의 섬을 구축했다는 소리도 나온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대학의 국제화 바람은 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듯 하다.

유학생들이 기여하는 대학 재정 기여도는 매년 350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학교는 유학생 유치에 방점을 찍는 나머지 정작 진정한 의미의 책임 교육을 실현

하지 못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쌓인 내국인 학생과 갈등이 강의실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풀릴 일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졸업 후 유학생 동문이 학교를 떠날 때 드는 생각과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연세대는 1년간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해 학업 수행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했다. 성균관대는 한국어 능력 강화과정에 대한 교재를 개발했다. 또한 1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계열 선택을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유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은 타대학에 비해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면 애교심도 자연스레 생겨난다. 전체 재학생의 16%가 유학생인 만큼 의지를 내비칠 만한 학교의 결단을 기대한다.

세시봉

한끼에 천원

이수현 기자

dltingus011208@khu.ac.kr



지금까지의 청년정책과 달리 실질적이고 접근이 쉬운 청년정책이 생겼다. 바로 ‘천원의 아침밥’이다. 지난달부터 오전 8시가 가까워지면 서울캠퍼스 푸른솔 학생식당과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학생식당에는 아침을 먹으려는 학생들로 긴 줄이 들어선다. 이유는 ‘천원의 아침밥’ 행사 때문이다.

올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0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7.5%) 이후 최고 수준이다. 비교적 저렴했던 대학가 먹거리 가격 또한 연일 치솟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 연합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학생 99%가 물가 인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식비가 꼽혔다. 대학생 77%가 가장 먼저 줄이게 된 지출도 식비였다. 식비 이외 월세, 등록금, 공과금 등 다른 지출은 줄일 수 없으니 당장 줄일 수 있는 식비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다.

학생식당 앞에 늘어선 긴 줄은 고물가 추세 속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지갑 사정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학교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천원의 학식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모두의 이목이 쏠려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4,000원 정도의 한 끼 식사비용 중 1,000원은 농식품부와 농정원이, 2,000원은 학교와 학생식당 운영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교적 학교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에서만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사업 진행이 가능하더라도 하루 세끼 중 한 끼에만 적용되며 이마저도 매일 한정된 인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가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천원의 아침밥’은 이전의 청년정책과 달리 대학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이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청년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시도돼야 한다. ‘천원의 아침밥’이 제2의 ‘천원의 아침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구시대적 규정

과도한 제한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한때 ‘먹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존재했다.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며 공부에는 답을 쌓는 대학생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치열한 스펙 쌓기 경쟁과 심화되는 구직난 탓에 이 단어는 옛말이 됐다. 이제는 ‘먹고살자고 대학생’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학생 대표들 또한 학업과 자치활동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휴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학생 위원의 자격 요건은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휴학한 학생 대표들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해 학생들에게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더라도 학생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학생 대표가 휴학을 선택하는 배경이 시대 흐름과 맞닿아 있기에 위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는 여러모로 학생 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내년에 치러질 총장 선출과 올해 예산 편성,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며, 15년째 동결된 등록금의 향후 방향 또한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학생이 직접 뽑은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그 자리를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표자의 적합성을 대학본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평의원회 구성원 중에 학생 위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학생 대표들은 구시대적인 규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라면 학교는 과감히 이전의 것을 벗어던지고 변화를 택해야 할 것이다.



만평 학생 위원의 자격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